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년 6월 9일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알코올 음료 생산 신용회사를 와인, 증류주, 사과주 산업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고 발표하다

**향후 2년 동안 크래프트 음료 제조업체가 400만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액 공제**

**고객들을 위한 무료 시음회도 맥주공장, 포도주 양조장, 증류주 양조장에 판매세를 감면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BPC(Beer Production Credit)가 뉴욕의 와인, 증류주, 사과주 산업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APC(Alcohol Production Credit)라고 알려져 있는 이 공제액은 향후 2년 동안 포도주, 증류주 및 사과주 양조장에 추가로 400만 달러를 절감시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은 급성장하는 크래프트 음료 산업의 중심으로, 이 행정부는 관료적 형식주의를 지양하고 비용을 절감시켜 더 큰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리의 활동을 지속시키고, 뉴욕주에서 활동하는 포도주, 사과주 및 증류주 양조장이 사업에 재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 활동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공제액은 뉴욕주에서 6,000만 갤런 이하의 맥주나 사과주를 생산하고, 2,000만 갤런 이하의 와인과 800,000 갤러 이하의 술을 생산하는 크래프트 음료 업계에 매년 제공됩니다. 이러한 공제 확대는 2016년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이는 2016-17년도 제정 주 예산(Enacted State Budget)에 포함되었으며, 2012년에 출범된 BPC(Beer Production Credit)를 바탕으로 합니다. 현재까지, 맥주 생산 세액 공제로 뉴욕의 맥주공장들은 1,100만 달러를 절감하였습니다.

뉴욕주 조세및재무국장인 **Jerry Boon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처럼 중요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여 크래프트 음료 산업에 맥주, 사과주, 와인 및 증류주 생산을 더욱 더 지원하면서 상업적 성공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주공장, 포도주 상인 및 증류주 생산자들은 앞으로 더 많은 수익을 거두어 사업을 키울 것이며 이를 즐기러 오는 소비자들을 위해 음료 장인들의 음료를 계속 공급할 것입니다.”

뉴욕주 농업국장인 **Richard Ba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래프트 음료 산업은 Cuomo 주지사가 제시한 대대적인 인센티브와 투자 덕분에 뉴욕주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업자들을 위한 세액 공제의 확대는 이곳 뉴욕에서의 사업 활동을 더욱 쉽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와이너리, 맥주공장, 사과주 및 증류주 생산자들이 발전함에 따라 뉴욕에서 재배된 농산물의 사용을 늘려서 우리의 농업 커뮤니티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주류국장 Vincent Bradley**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류법, 정책 및 법규에 혁신적인 변경 사항을 제정하는 것 외에도 세금, 수수료 및 서류작업을 크게 줄임으로써 뉴욕주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크래프트 제조업의 부활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개발 및 관광업을 촉진시키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제조세 공제 외에도 과거에 맥주공장, 사과주 공장, 와이너리 및 증류주 공장에서 시행하는 시음에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알코올 음료 생산자들의 세금까지 면제해주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즉시 효력이 발휘되는 이 규정도 2016-17년도 주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맥주공장이 크래프트 맥주를 생산하는 시설에서 판매를 위해 시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시음 시 제공한 맥주 뿐만 아니라 맥주 포장 시 사용하는 병, 뚜껑 및 라벨에 대해서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넓은 범에 대한 과감한 개혁, 새로운 마케팅 활동 및 인센티브, 불필요한 요식행위 감소를 통한 주지사의 관련 업계 지원으로 2011년 이후 뉴욕주에서 와인, 맥주, 증류주 및 사과주 생산업자들이 169% 증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소규모 크래프트 맥주 및 증류주 제조업체들은 2013년 이후 브랜드 라벨 등록 수수료로 1,755,950달러를 절감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7일, 소규모 증류주 제조업체들의 브랜드 라벨 등록 수수료를 면제하는 주지사의 법안이 발효되어 뉴욕 크래프트 증류주 업체들은 현재까지 526,250달러를 절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새로운 농장식 맥주공장 면허를 도입하는 주지사의 입법 활동으로 소규모 맥주공장과 농장식 맥주공장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라벨 수수료를 없애어, 2013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발효된 이후로 소규모 크래프트 제조업체에게 1,229,700달러를 절감해주었습니다.

**와인 & 포도 재단의 Jim Tresize**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Cuomo 주지사가 ‘기업 정부’를 활용하여 뉴욕 포도 및 와인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들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 산업은 이미 뉴욕주 경제에 연간 50여억 달러를 창출시켰습니다. 이 세액 공제는 와이너리에게 돈을 절감시켜주어 이들이 사업에 재투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원에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증류주 길드 회장인 Brian McKenzi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랜드 라벨 등록비 감면에서 농장 증류주 공장의 복제 라이선스 제거에 이르기까지 뉴욕주는 증류주 제조업을 위해 비용과 불필요한 요식행위를 없애는 데 큰 발전을 이뤄내었습니다. 확대된 생산 세액 공제는 또 다른 발전을 이끌어 이 업계가 계속 성장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뉴욕 사과주협회 실무국장인 **Jenn Smit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코올 음료 생산 세액 공제는 뉴욕주에서 사과주 생산의 규모와 품질의 증가에 박차를 가해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주지사는 사과주를 제조하고 판매하는곳에서 진행되는 시음에 세금을 면제해주어 생산업자와 사과주 시음실을 찾은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교류를 더욱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주었습니다.”

알코올 음료 시음 면제와 관련한 더 많은 정보는 [여기](#)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욕 주의 알코올 음료 생산업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